

다문화·저소득 자녀 ‘희망 선물’

“관광으로 문화이해 어렵다”

다문화자녀 “은따” 가슴앓이, 놀면서 하나돼

(은근히 따돌림)

희망법당 글로벌리더 꿈꾸는 다문화 아이들

11월 13일 서울 회기동 연화사(주지 묘장)에 김천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 19명과 동대문구 용두동 희망만들기 방과 후 교실 어린이 2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화사에는 종일 어린이들이 웃고 떠는 소리가 가득했다.

장기자랑 시간.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은혜(김천 중앙초3) 어린이가 일본노래인 ‘사쿠라(벚꽃)’를, 필리핀 어머니를 둔 엄정대(김천 중앙초5) 어린이는 ‘LOVE’라는 곡을 영어로 멋지게 소화했다. 엄정대 어린이의 모습에 반했는지 몇몇 여학생은 “오빠, 이름이 뭐야?”라며 적극적인 관심도 보였다.

장기자랑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리코더와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발을 쓰고 최신 유행곡에 맞춰 춤추며 숨은 장기를 뽑았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진행한 첫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경희대학교 박물관을 구경하고, 캠퍼스를 구경하며 대학생이 된 미래를 꿈꿨다.

연화사 법당에서는 바구니에 공 날기, 풍선 게임, 판 뒤집기, 스피드 게임,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어린이들은 ‘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박수경 강사(자연주의 교육연구소)는 “글로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상임대표 법등, 이하 경불련), 직지사(주지 성웅)와 함께 ‘FUN한 만남 & 약속’ 행사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도였다. 주최측은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 정착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과 문화, 피부색에 대한 분별 대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이튿날, 서울팀과 김천팀 어린이들이 다시 놀이동산에서 만났다. 아찔한 놀이기구 속에서 우정은 싹텄다. 헤어질 시간, 서먹했던 첫 만남과는 달랐다. 아쉬운 작별 인사가 오갔다.

“안녕, 다음에 또 봐.”
인솔자 선생님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등 스님은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계층 등 소외된 어린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체험을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 인성이 개발돼 꿈을 갖고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2011년부터는 장기전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일반 가정 어린이들의 교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kemichino@gmail.com

다문화2세 숨은 고통

한국인 20명중 1명은 다문화가족이다. 다문화 2세 자녀(행정안전부 2010.3.31기준 12만 1935명)는 6세 이하 7만 5776명, 12세 이하 3만 587여 명, 15세 이하 8688 명, 18세 이하 6884명으로 증가 추세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2개 국어 구사, 2개국의 문화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과 언어, 정체성 혼란으로 다문화 2세들은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2008년 10월 국정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10명 중 2.5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 16~18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정규 교육권 밖에 있다. 같은 연령대의 한국 청소년의 미취학률(8.7%)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부진으로 이어진다.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읽기, 이해력, 쓰기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또 두 나라의 혼재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불련 오용승 사무총장은 “다문화 어린이들이 가장 원망하는 사람은 어머니다. 학교에서 외모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거나, 학교수제도 따지지 못하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멸시와 차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이주진 정책과 행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현재 나이가 40입니다. 아버지는 승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의 모든 일을 아버지가 결정했고,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다 된 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당시 말을 듣지 않으면 10년이면 20년이면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승려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80살이 다 되도록 안정적이고 편하면서 존경받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승려집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남들 앞에 쉽게 나서질 못했습니다. 혹여나 그릇된 행동이 집안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입니다. 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와 대화

허수아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에다 지금까지의 인생경로를 한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나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 중에 아버님과 연결된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허수아비 인생처럼 비춰진 나를 벗어나 좋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나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Q 아이가 하나 있는 31세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구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구요. 밤12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면 내가 내일을 못 볼 것 같은 이상한 강박관념에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

승려 되라 권유하는 아버지가 싫습니다 지구 멸망 두려워... 위빠사나 도움될 것

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입니다.

A 아버님의 뜻에 의해 불편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재자처럼 언행하는 아버지와 승려가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80살이 다 돼도 승려가 안정적이고 편하다'라고 한 것에는 삶의 한 부분에서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한 아버님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전을 따지기보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일류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점검해볼 기회라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독재자처럼 말씀하지만 아드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40살이란 나이는 충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되고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는 버릇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고, 꽤 신빙성 있는 과학적 논거들도 제시되고 있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잠도 못자고,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학교도 한번 못가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A 불자라면 불교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기도와 명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은 내담자께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완시키면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명상에 관한 서적은 이미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빠사나 명상은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수행 방법이니 한번 찾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당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김천 지역 다문화 가정 어린이 19명과 동대문구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이 서울 나들이중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 포즈를 잡고 있다.

turn'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菓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菓)'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菓)'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菓)'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菓)'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